

부활 제5주일

기도서 296 면

제1독서: 사도 9, 26-31

제2독서: 요한 1서 3, 16-24

복음: 요한 15, 1-8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⑤ 3201

□ 강론



## “모 습”

(요한 15, 1~8)

### 박 종 상 신부

“자라고 번성하여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명입니다. 이에 맞춰 온갖 것은 꼴을 갖추니, 크고 작은 것이라든지 이름이 있고 없고는 물론이려니와, 아름답거나 추하거나에 상관없습니다.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의 모습을 참되게 찾는 것, 즉 본 모습을 찾을 때, 우리 또한 참되게 이를 살핍니다.

자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콩심은 곳에 콩나고 팔심은 데에 팔이 납니다. 또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꾸미지도 자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옳으나 이 또한 조화라는 말 속에 포함됩니다. 돌하나 무의미한게 없고 풀 한 포기에도 신비스러운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성을 가진 인간은 그 이치에 경의 내지는 순응을 꾀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조건을 제공받으면 무성해지나, 그렇지 못하면 시들어집니다. 우리의 처지와 꼭 같지요.

성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 원조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일(창세기 3장 참조)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마르코 11장 12절 이하)는 본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킵니다. 지선악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느님 평명에 대한 불순명이나 동시에 호기심이나 우월에 의한 자연질서의 파괴 즉, 본 모습을 깨뜨리는 것도 되겠기에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마태오 7장 26절)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 모습을 감춘 바리새이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힐책하십니다(마르코 12장 38~40. 루가 11장 31~54 참조) 반대로 본 모습을 지었을 때에는 가까이 하시고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마태오 19장 13~15절), 자캐오의 행동(루가 19장 2~10절), 과부의 헌금(마르코 12장 41~44절), 그 외에도 반신불수나 소경 및 앵무새의 치유 과정에서도 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중에도 이런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어느 누가 떨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위선, 허영, 교만은 본 모습을 앗아가기 위해 항상 유혹합니다. 거울에 얼굴 비추듯 창조자의 모습에 우리 모습 비춰 바로 찾을 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올 것임을 믿고 마음 굳게 가집니다.

(성심 여중·고 종교강)



## 이 시대의 문제점들 ②

오월은 매우 좋은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풍요로움고, 성모성월이어서 더욱 즐거운 달이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우리들도 가쪽끼리 소풍을 많이 다닌다. 특히나, 어린이날을 전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전주의 유일한 시민공원인 덕진의 동물원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다. 그런데 막상 그곳을 찾자면 교통편이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넉넉한 사람들이 사 자가용차도 있고 택시도 많으니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야한다. 또 그안의 풍경은 갓난애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콩나물처럼 뻗뻗하여 사지가 각각 논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지사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 어린이날의 의미가 무엇이요 경노사상이 무엇인지도 다시 살펴야 한다.

사람들은 복지사회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 든다. 지난번 의령사태만 해도 그렇다. 배죽음의 비극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국에, 보도기관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장비비 액수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재빨리 알리고 있다. 조금은 살벌하게 느껴졌다.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려 드는가 싶어서 말이다. (물론 되살아날 수 없는 죽음앞에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염려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또한 산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서 조위금을 걷겠다는 문교부의 날선 동작에는 알미웁기까지 했다. (이 발상은 나중에 수정이 된 것으로 안다.) 의령사태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까지 열기로 했더니, 제발 어떤 형식에 그치는 모임이 아니기를 빌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

복지사회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육구의 충족을 얻어낼 수 있는 사회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 처럼.

## 숲 정 이 산책



천주교를 무료 선전해 주셔서 고맙소



# 부활과 신앙새신

김 영 옥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골립 2, 8).

부활의 신비는 바로 이 말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실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박차고 약속대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부활은 바로 믿는 이들의 희망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실된 신앙인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나의 오롯한 신앙을 무디게 하고 그 열을 식게 만드는 것들로부터의 과감한 탈출이요, 나에게 묻어 있는 많은 죄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정의롭고 참되게 사는 것이다.

부활은 인간적인 모든 약점으로부터의 결정적인 해방을 가져다 준다.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자신을 싸매었던 수의를 벗어 놓으셨다. 이 수의는 바로 나의 약점, 마음의 병, 나의 불완전함에 대한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스카가 다가오면 빠스카 고양(羔羊)을 먹기 위해서 모든 빵을 버렸다. 나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를 얽어 매는 유형무형의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초연해져야 하겠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그분의 생명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죄에 물든 나 자신을 벗어 버리고 그분과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이다. 세례의 정신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그 말씀을 생활하는 나로 변화되자.

<노송동 천주교회>

# 五月의 마돈나여!

장 그리스티나

파아란 풀내음이  
하늘과 땅을 취해놓은  
五月 마돈나의 달

깊은밤 어둠을 벗어 던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소망을 불태우는  
송이 송이 구르는 목주알

훈풍같은  
훈훈한 체온이 스치는 五月  
어머니! 어머니시여!  
이 보다 더 맑고  
더 푸른 당신을 향한  
티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가시밭길에서도  
증오의 갈등속에서도  
언제나 따스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던 어머니!

이제는 잊었던 본향을 찾아  
깊은 잠에서 깨어  
신비의 불꽃을 향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우리! 이 세상 마칠때까지  
영원한 등대이신  
오! 오월의 마돈나시여!  
장미꽃 송이 송이 피어나듯  
메마른 가슴마다 은총의 소나기  
담뱃 쏟아주옵소서!

<둔울동 교회>

## 진 상 을 알 리 자!

주지하신 바와 같이, 소위 부산사태와 원주사태를 놓고 그간 정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기관과 언론을 동원, 우리 교회와 그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너무도 엄청난 손해와 여론오도를 가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의 자세로 의연히 진실을 살피 교회와 뜻을 같이하고 더욱 깊이 일치해 주신데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듯 무모한 획책과 향간의 많은 오해들로 행여 교회와 겨레에 끼칠듯한 더 큰 혼란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진실을 전하고 밝히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차례 본 「주보」를 통해 또 약간의 「소재자」를 엮어 사건의 경위와 그 실상 그리고 교회의 입장 등을 밝힌 각종 성명서와 유인물등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직도 여러가지로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계속 더 큰 활동과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껏 사실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해명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의 참된 이해와 화합을 위해 본당 신부님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말씀을 나누시고 교회태도를 밝힌 자료(유인물)들을 받아 서로 돌려가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복음선교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금·은·보석·시계

### 일 성 당

정음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개업

“교우님들의 사업에 「節稅」로서 봉사코져 합니다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가톨릭센터 221·222호실>  
전화 6604

“교우님들에게는 언제나 저 세무에 대하여 무료 상담하여 드립니다  
세무사 이환영(아오스딩)

(SS) FASHION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버킹검런던포그  
(주) 유 올리안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4451

간이복·성인용  
아동용·주니어  
위크엔드





## 가톨릭 신앙·성서 강좌를 시작하며

—“증인이 아닌 신앙인은 이미 자기 신앙의 약세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전주 가톨릭센터에 개설한 지성인 예비신자 교리반과 성서교실에 지금까지 80여명의 예비자와 130명의 성서반 희망자가 등록되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행하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파견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성숙된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톨릭교에 대한 인식도 호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고린토 전서 9, 16)고 말씀하신 바오로 사도의 자각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선교는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지만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사업중의 하나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고 모든 교회활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내일의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신앙안에 있는 어제의 두 사람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교회의 미래상 P.98)을 재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자를 찾아 사회에 투신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줄 때만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증거가 됨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가톨릭센터 관장 유장훈 신부)

## □ 원평성당에 L.M 「꾸리아」 신설

수류, 원평 본당은 지난 1일 양 본당 합동으로 수류에서 전 신자 연수회를 갖고(쑤미시움 주관) 7개 「쁘레시디움」으로 새 「꾸리아」를 발족시켰다. 초대 단장에 김준권(안드레아)씨가 선임돼, 오는 6월 6일 첫 회의를 갖는다.

또한 한들 본당에서도 2일 쑤미시움 주관으로 전 신자 레지오화를 위한 하루 연수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 「숲정이」철(綴)을 구합니다

오는 6월 20일이면 교구보 「숲정이」가 지령 500호를 맞게 됩니다. 이 뜻깊은 연를 맞아 교구에서는 그간의 주옥 같은 원고-강론과 소리, 만화 그리고 게재했던 특별기고들을 A. B. C해로 엮어 기념 특집 한권(약 300페이지 예정)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더없이 생생하고 값진 우리들의 역사, 진귀한 책자가 탄생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본 「특집」 마련을 위해 애독자의 「주보철」(창간호~493호)을 구하고 있으니 소장하고 계신 교형계신 기쁘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응분의 시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보철은 편집 참고후 반환해 드립니다)

편집에 우선 필요하오니 5월 15일까지 주소, 성명 기입, 교구 숲정이 편집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숲정이 편집실—

## 요심이 (457)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칙본(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짜즈·크라식

##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오케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공장도 구입 심부름(상설 할인 백화점)

## 정주 심부름 백화점

TV(266,240원), 냉장고(266,040원), 밥통(11,000), 단스(36,000원), 책장(39,000원), 쇼파(6~15만원), 침대(11~14만원), 신발장(2만원), 사무용 철재일체, 혼례용 장농(티크 12~15만원), 백통·원목·공예·자개·철기장

정읍 터미널 앞 전화 7196·8556 와서 보시오  
손 안드레아(기영)

## \*커피專門店



전신전화국앞, 임금님다방 2층  
☎ ⑤ 011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 팔마꽃집

팔마성당 앞

전화 ③ 5074

이 아나다시아(용심)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예비자 교리(신앙강좌) 개강: 일시-환영식 5월 9일 10시, 장소-가톨릭 센터
2. 성서강좌 개강: 베네펀서 일시-5월 10일 <월>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베소라성서: 일시-5월 11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 등록하신분은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성소사 신학교 견학연수: 일시-5월 16일 오전 9시(전주 가톨릭센터 출발), 대상-남자 고등학생 및 부모, 참가비-교통비·식대·일체 교구 부담
4. 장례 예절 교육: 일시-오늘 10시~16시, 장소-가톨릭센터
5. 전주지역 푸르실로 들레아: 일시-5월 10일 <월> 오후 7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6. 7지구 교리교사 단합대회: 일시-5월 15일 <토> 오전 10시(논산 터미널 집결), 장소-탑정 저수지
7. 성민호 신부 귀국: 약 2개월간의 미주 사목시찰을 마치고 4월 29일 귀국하셨습니다.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사도행전 14장~16장, 요한 14장~15장
1. 중앙성당 25주년기념 성전건립: 새 성당건립을 위하여 특별히 헌금하실 분은 본당신부님께 전화 혹은 면담하십시오
  2. 구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강당
  3. 프란치스코 형제회 야외회: 5월 15일 <토> 오전 11시 덕진공원, 지참물-목주·기도서·도시락
  4. 자모회 월례회: 5월 15일 <토> 오전 10시30분 회합실
  5. 복자반 교리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 수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688,451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재  
사도 회장 이흥재

1. 대학생회 발족: 14일 <금> 저녁 8시(본당에서) 남·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구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성령기도회: 매주 <금> 오후 2~4시 직장인-매주 <금> 저녁미사 후
  4. 수녀님들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 <월> 오후 2~4시
  5. 급급 성경읽기: 신약의 로마서 전체
  6. 예비자 교리: 일반-매주 <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 <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 <토> 오후 4시
  7.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8. 성모성령 기도: 매일 저녁미사 후, 많은 참여 바람
  9. 켈 모임: 매주 <토> 오후 5시
  10.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00,67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애령주일: 먼저가신 선령을 기억하고 미사봉헌할사다
  2. 반석회 월례회: 공식미사후 I.T.S 회의실
  3. 본당 야외미사: 일시-23일(승천대축일) 장소-덕진 왕능, 작년 그자리, 대상-전신자 유일학교 포함 그날 본당 8시30분 10시 오후 3시미사는 없습니다
  4. 장례 예절교육: 참석하시는 분은 본당 애령회에서 경비 일체 부담해 드립니다
  5. 다음주 성모회 월례회: 할머니들 많이 참석하세요
  6.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자리는 앞에서부터, 성서·성가집·기도서 꼭 지참하세요 ※ 숲정이는 미사후에 읽어보세요, 미사중엔 금물
  7. 성모성령입니다 성모상 주위에 꽃과 초 봉헌 바람, 9세대 1가지
- 지난주 봉헌금: 389,510원 성소주일금: 109,89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회장 및 반지도자 모임: 16일 공식미사 후 꼭 참석하세요
3. 부녀회·빈첸시오회: 10일 <월> 어머니미사 후
4. 저금통을 속히 내주세요: 반회장님 거두어서 주세요
5.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허메레사씨 지도)
6. 다음주 전례: 해설-김인식

독서 ①유기순 ②안가다리나  
□ 지난주 봉헌금: 408,65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반장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단원들 참석 바랍니다
  3. 할머니회 모임: 다음주일(16일) 공식미사 후
  4. 성심부녀회: 13일 <목> 장소-손유면(무시아)씨 댁
  5. 교무금 미납하신 분께서는 속히 납부 바람
  6. 차주전례: 독서 ①박용달 ②최주원
- 지난주 봉헌금: 240,300원 교무금: 136,000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애령회 임원 연수회: 5월 9일 10~16시까지 지참물-성교예규·공동체 성가지
  2. 성모회 월례회: 5월 16일 공식미사 후
  3. 유일학교 아동 소풍: 5월 9일 효자동아파트 뒷산
  4. 누갈다 부녀회원 성지순례: 5월 11일 아침 6시 출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람
  5. 성서연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 예수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왕능 뒷산
  7.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 아침 6시, 공식미사-10시, 오후 3시, 밤 7시 30분, 평일: 월·목요일-7시 30분, 금·토요일-7시
  8. 차주 전례담당: 해설-홍성조 독서-강 삼·송용호, 기도-이기호
  9. 미사 참례자 안내: 나홍덕·문스텔라·정공순·이정숙·육누시아·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480,245원

(전동)

전화 사무 ⑥6208  
수녀 ⑧8347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피미시움: 다음주
  3. 구역장 및 지도위원 모임: 5월 11일 8시 사제관
  4. 켈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 신축기금: 백런기·범덕배(각 100,000원), 조지영·이병식(각 50,000원), 박삼례(4,000원) 감사합니다
  6. 수녀원 준공식: 공식미사 후
  7. 전례부장 이주철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임 전례부장: 이주영씨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셔요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이현재 ②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신일균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영철 ②변해식
- 지난주 봉헌금: 549,09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1. 레지오 옥외행사: 오늘 10시 미사후에 있습니다. 본당 사도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전원 참석을 요망합니다
  2. 13일 <목>은 본당 주보축일입니다. 밤 8시에 미사와 아울러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행사의 계획은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3. 각 분과위원회: 5월 한달동안은 없음
  4. 중·고학생 교회활동과 각회합: 토요일 오후에 있음
  5. 중·고성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한시간씩 있음
- 지난주 봉헌금: 196,430원 교무금: 321,000원